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한 마디.”

이름: 아리스티드 N. 실베스트르

Aristide Noé Sylvestre

나이: 22살

성별: 남

외관:

https://picrew.me/image_maker/560574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와 같은 이미지.

A. 아버지를 닮은 밝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여동생처럼 어머니를 닮은 금발이 아니라 아쉬워하지만 탈색은 하지 않는다. 머리숱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파마 같은 것은 일절 하지 않으며, 살짝 곱슬거리지만 그리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다.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까치집을 방불케 하는 터라 빗질로 곧게 편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머리카락의 끄트머리가 살짝 곱슬거리면서 뒷목의 3분의 2를 조금 넘게 덮고 있다.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기 때문인지 쓰다듬을 때면 손의 무게에 살짝 가라앉으며 열게 폭신한 느낌을 준다. 머릿결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전체적인 헤어 스타일은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마를 드러낸 채 왼쪽으로 조금 더 기울인 가르마는 4:6의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하는 머리 형태는 그냥 풀어두는 것이었다. 왁스로 고정하거나 일부러 꼬아내지 않은 자연스러움은 그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다.

B. 눈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푸른 빛을 띠는 녹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티드는 늘 자신의 눈동자를 가리켜 그닥 아름답지 않은 색이라고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오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마치 한여름의 해바라기 잎을 에메랄드 빛을 한가득 담은 바닷물로 채운 것과 같은 색을 가진 눈동자는 늘 반짝였다. 눈가는 둥근 형태로 그 반짝이는 눈동자를 담고 있었다. 잘 정돈된 짙은 밤색의 눈썹은 얇은 아치 형태를 그리며 둥글게 휘어지는 모양새를 가져 순한 인상을 주었다.

Γ. 피부는 하얗고 좋은 편이다. 쿨톤의 피부는 햇볕에 오래 있으면 타지 않고 빨갱게 익어버린다. 얼굴은 가름한 계란형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에 속한다. 코는 상당히 오뎅한 편이다. 입술의 두께는 적당히 도톰한 편이고, 윗입술이 아래 입술에 비해 조금 얇은 편이다. 라이트 베이비 핑크와 라이트 피치 핑크가 적절히 섞인 분홍빛을 띠고 있다. 볼은 웃을 때면 아주 열게 보조개가 파이고, 열은 홍조가 감돌아 그를 더욱 부드럽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첫인상이 평생의 인상을 좌우한다는 사촌 동생과 동생의 주장으로,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편이다. 항상 스킨과 로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입술엔 입술 보호제를 바르며, 겨울엔 수분 크림도 꼼꼼히 발라주고, 일주일에 2~3번씩은 팩을 한다. 거의 항상 입가에 열은 미소가 있어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열은 호선을 그리고 있는 입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의를 느끼게 한다.

Δ.남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표정은 미소. 화내더라도 웃으면서 최대한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한다. 언제나 마음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겉으로는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나마 무표정해지는 때가 있다면, 표정 유지가 힘들 정도로 감정이 상당히 격해졌을 때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얘기한다. 몸매는 꽤 좋은 편이다. 다부진 체격에 보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잔근육이 상당히 발달되어있는 타입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럭비 부의 주장으로 활동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운동 습관 덕분에 아직까지도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키가 크고 비율도 좋은 편이라 보는 사람마다 대부분 호의를 가지고 다가간다. 본래 타고난 외모는 선이 굵기보단 얇고 섬세한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과 본인의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상당히 선 굵은 미남으로 자랐다.

E. 주로 입는 옷 스타일은 편한 옷 위주의 복장. 상의는 편한 티셔츠, 후드 티, 와이셔츠, (겨울에)스웨터, 하의는 청바지, 바지. 상의는 흰색, 베이지, 검정색, 회색 등 거의 짙은 계열의 색이나 단정한 이미지의 색을 입으며, 하의는 짙은 남색, 검정색 등 어두운 색 위주로 입는다. 추운 날씨가 아니더라도 늦가을 즈음이면 항상 가디건을 걸치고 겨울에는 꼬박꼬박 워머, 목도리를 착용한다. 신발은 주로 남성용 수제화를 신고, 운동할 때에는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와 러닝화를 신는다. 출근할 때에는 셔츠에 자켓만 걸치고 가는 일이 잦고, 여동생의 연주회나 중요 행사가 아닌 이상 쓰리피스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은 아니다. 액세서리는 거추장스럽다고 잘 하고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가족과 맞춘 것과 손목시계는 꼬박꼬박 하고 다닌다. 오른손 검지에는 여동생과 맞춘 은반지, 팔목에는 가족 다같이 맞춘 백금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 손목시계는 그 때의 복장과 상황에 따라, 혹은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잦다.

키/몸무게: 188cm 77kg

성격:

A.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띄고 있으며, 목소리 또한 부드럽고 다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첫인상은 좋게 남기는 편이다. 물론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무리도 존재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항상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고, 말투도 부드럽고 다정하다. 외조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산 영향으로 대부분의 난처한 상황을 능숙하게 넘어간다. 훌륭한 신사인 외할아버지와 어렸을 적 지낸 추억이 꽤 많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배려도 넘친다.

B. 책임감은 강한 타입이다.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꼭 책임지고 해결하는 성격이며, 그런 자신의 성격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한다. 언제나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으며, 남에게 모호한 이유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는 자존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는 직책을 맡는 것을 좋아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따라준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며, 그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존심이 적당한 편이지만, 상대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상대가 약자라면 자신을 굽혀주고, 강자라면 자신도 마찬가지로 뻗뻗히 하여 꺾지 않는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라면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거나 공감이라도 해서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Γ.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즐긴다. 어떤 사람과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겪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며, 좋은 만남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Δ. 매너를 중요시한다. 어렸을 적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인지 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들에게 장난의 도를 넘어서 비매너적인 행동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며, 언제나 부드럽고 매너있는 신사다운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그런 노력은 항상 빛을 발해서 주위의 이미지는 매너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그러한 면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외할아버지이다.

E. 여동생의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라도 미루고 우선시할 정도라서, 일반적인 남매의 모습 - 서로 치고박고 싸운다던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 척하면서 산다던가 하는 것 - 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키우듯 보살핀다. 가끔 여동생의 방에 간식거리를 들고 찾아가기도 한다. 여동생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풀 네임을 부르는 일이 없으며, 늘 그녀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응원해준다.

기타:

Aristide

A.Aristide - 가장 좋은

B.Birth - 11월 24일

Γ.별자리 - 궁수자리

탄생석 - 토파즈 (우정, 희망, 결백, 부활), 코발트 캐사이트 (초조감의 해방)

탄생화 - 국화 (성실, 진실), 가막살나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탄생목 - 사시나무 (야망)

Δ. 성공한 어린 사업가

E. 태어났을 때부터 물고 있었던, 새하얀 은수저.

Z. 반듯하고 정갈한, 하지만 조금 기울어진 글씨체

H. 여유가 있을 때마다 손에는 원예와 관련된 책이 들려있었다.

Θ. 자랑스러운 장남

Θ-1. 아버지, 어머니,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프랑스의 실베스트르 집안의 장남으로 아래로 두 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다. 차분하고 침착한 아리스티드와 달리 여동생인 클로에는 꽤 개구쟁이였는데, 아리스티드는 이런 여동생의 모습이 무척 생기 넘치고 발랄하다며 귀여워했다. 학교는 모두 에스컬레이터 식 사립 학교를 나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다니며 대를 이어온 사업을 물려받았다. 여동생은 현재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I. 원예를 취미로 삼고 있다.

K. 기분 좋은 날이면 흥얼거리는 콧노래

Λ. 특기는 요리. 가장 자신 있는 건 쉬림프 토마토 파스타와 비프 스투.

M.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

M-1 그렇게 보이니? 하지만 나는 사업가란다. 세상을 읽어야하지.

Like

-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지게 된 것
- 글, 쓰는 것도 읽는 것도.
- 에메랄드 그린, 여동생의 눈동자 색.
- 비 오는 날 실내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일
- 고양이

Hate

- 물컹물컹하거나 질긴 것
- 시간 때우기 용으로 나온 것들

- 여름